



DIABLO
목적자

ALMA KATSU

단편 소설

작가
ALMA KATSU

편집
ERIC GERØN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창작 자문
LEWIS HARRIS, VIVIANE
KØSTY, JØE SHELY, DANIEL
TANGUAY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디자인
CØREY PETERSCHMIDT

일러스트
IGØR SIDERENKØ

BILZARD
ENTERTAINMENT

© 2023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와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목적자



손님이 언제 찾아올지는 항상 알 수 있다. 그럴 때면 평상시에는 장작 연기와 먼지만 아른거리는 고요한 접객실 공기가 마치 살아 있는 듯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살아난다*.

또 몇 분 후에는 앞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피와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방인이 실체화된다.

처음 이곳을 찾아온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갑자기 낯선 접객실에 나타나 그림자와 안개에 둘러싸인 신비한 형체를 바라보고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을 테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런 걸까? 가끔은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이곳으로 보내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여기로 오게 되리란 것은 몰라도 여정 자체는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건지는

모르고, 물어본 적도 없다.

방문객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는 서기다. 성실한 역사의 기록가다. 질문은 규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필멸자의 일을 돕는 조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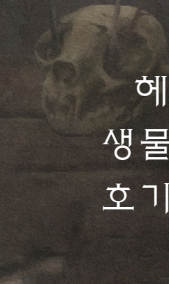
나는 내 앞의 공기가 다른 차원으로 밀려나는 듯 굳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색이 나타난다. 회색 연무, 하얀색 눈부신 섬광, 남자의 파란색 눈동자, 금속 칼자루의 반짝임. 그리고 그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다. 크고, 마르고, 강단 있어 보인다. 나이가 어린지 많은지도 종잡을 수 없는 외모이지만, 강인하고 기민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머리카락이 길지만, 얼굴에서는 머리가 그렇게 백발이 되기까지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행자의 옷이라 할 망토를 두르고 좋은 장화를 신고 있다. 숨씨 좋은 장인이 만든 비싼 의복이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챙이 넓은 모자를 벗어 여우상의 얼굴을 드러낸다.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코가 뾰족하다. 두 눈에서 느껴지는 지성과 함께 희미한 한기를 통해,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의 얼굴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은 짓궂은 미소와 함께 교활한 표정으로 굳게 다문 입이다.

이 자는 어딘가 다르다. 검 때문만은 아니다. 분명 진중한 목적으로 가져온 무기다. 단순히 경고의 의미가 아니다.

다른 방문객과는 달리, 그는 금세 방향 감각을 되찾는다. 때로는 꿈을 꾸다가 오는 손님도 있지만, 대부분 성역에서 비약이나 어떤 차를 마시고 이곳을 찾아오곤 한다. 그 효과에서 그는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많이 마시지 않았거나, 아주 약한 성분을 이용했을 것이다. 밤그늘 약제나 살비아 디비노룸은 아니다. 기껏해야 사냥개의 피 골무나 수사슴의 뿔 가루였을 테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자칭 마술사라는 놈들은 대부분 돌팔이들일 뿐이고, 몰약에 무얼 넣는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내게 와서 멎는다. 내 머리카락은 여전히 검고, 두 눈은 초록 바다처럼 아른거린다. 답지를 찾아 여기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날 보기만 해도 원하는 걸 찾았음을 알 것이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숨길 수 있는 옷을 선택했다. 각반과 소매, 가죽 띠와 청동 이음쇠로 이루어진 보디스 사이로 피부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두건이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을 대부분 가려 주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깜빡이면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두 눈 또한 감춰 준다.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헤다지는 온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생물 중 하나다. 방문객 중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날 찾는 사람들도 있다.

벌어지고 있는지를 방문객들에게 알려 줄 수는 없다. 두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황홀하다 말하는, 열지만 강렬한 두 눈과 미소만을 보여주며 방문객을 안심시키고 맞이한다. 참을성 있게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 줄 것을 약속하는 듯한 미소로 방문객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해준다.

그의 시선이 내 손과 팔뚝으로 내려온다. 소매 아래쪽으로 문신이 비어져나와 있다. 단순한 기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휘다. 그는 문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 죽어 사라진 언어니까. 게다가 그 어휘 위에는 새로운 그림이 더해져 있다. 옛 문신 위를 뒤덮고, 옛 의미를 휘감으며, 서로 뒤섞여 모호하게 하는 새로운 문신. 내 현재가 과거를 숨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은 빠르게 지나쳐 잉크로 얼룩진 내 손으로 향한다. 팔뚝 중간까지 번져 있는 얼룩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상징한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

그가 그중 한 손가락을 바라본다. 두 번째 마디를 절단하고, 그 자리에 잉크통 모양의 독특한 장신구를 씌워 놓은 손가락. 잉크통은 일할 때 쓰는 도구 중 하나로, 내 피와 뒤섞여 아주 특별한 잉크를 만드는 염료가 담겨 있다.

그가 뭔가 물어보려는 듯 입을 연다. 하지만 그저 입술만 핥고 늑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잘린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걸까?

물어볼 생각은 없다. 나는 그가 날 해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안다. 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방인이여, 환영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해 보지만, 오늘은 왠지 그런 기분이 아니다. 평소시의 난 방문객이 찾아오는 걸 즐긴다. 함께할 사람, 잠시 기분 전환이 되어 줄 사람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때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다는 듯, 대체 어디로 떨어진 건지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모든 지옥의 이름으로, 여기는 대체...이런, 세상에나. 효과가 있었군. 당신, 헤다지겠지?"



헤다지는 온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생물 중 하나다. 방문객 중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날 찾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스승이 되어 준 바다알을 만나기 전에는 헤다지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다. 바다알은 내게서 무언가를 보고, 내가 자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난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실 워낙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이 지난 건지는 잊은 지 오래다. 물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헤다지에게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방인은 나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운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한다. 굳이 겸손할 필요는 없으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가장 존경받는 헤다지 중 하나다. 장대한 위업을 수도 없이 목격했고, 무시무시한 전투와 영광스러운 죽음을 기록해 왔다. 전부 내가 호기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나는 아직도 지식에 목마르다. 지식은 갑옷만큼이나 강력한 힘이자, 그 자체로 무기이다. 헤다지 중에는 한두 가지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는 것에 만족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언제나 사냥에 뛰어 들었다. 내 갈증에는 끝이 없고, 내 탐구는 무한하다.

하지만 탐구의 목적은 달라졌다.



방문객은 뒤로 물러나, 마치 우리에게 갇힌 채 나갈 곳을 찾는 야생 동물처럼 벽을 따라 거닐기 시작한다. 한쪽 방향으로 몇 걸음을 가더니, 다시 돌아서 반대쪽으로 걷는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벽처럼 그를 막아선다. 그는 멀뚱히 서서 돌아갈 길은 없는지 찾아 보지만, 안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게 실존하는지 분간하지도 못한다.

"여긴 어디지?" 어딘가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 그래서 실제보다 더

허공에서 카드가 나타나고, 나는 손을
뺐는다. 카드들이 내 손 위에서 춤을
추며 서로 뒤섞인다.

상냥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는 감혔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방 중앙을 향해 손을 뺐으며 그에게 벽에서 떨어지라는 뜻을 전했다.
“이방인이여,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이름이 뭐가요?”

“지아란. 지아란이라고 한다.”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부터는 분명 다른
이름을 쓰겠지.

“여긴 제 접객실이에요. 여기로 오실 생각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실수로 여길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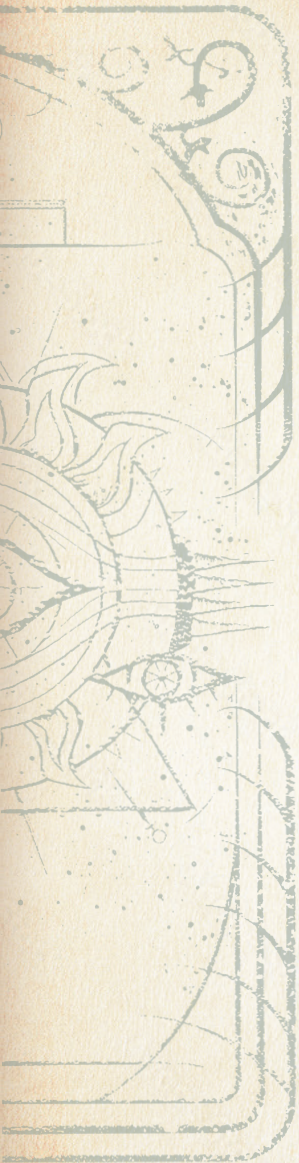
“그래, 이유가 있어서 온 거야. 은둔한 연금술사를 찾아갔었지.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 어떤 물약을 마신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떨리는
한 손이 이마를 짚는다. 그는 눈을 감고 자꾸만 미끄러져 나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를 쓴다.

지아란은 어딘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괜찮아요. 여기가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마음껏 둘러봐도 돼요. 제 거처에는 골동품과 보물이
많으니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에는 끝이 있으니,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은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특별히 찾는 것이 있나요?”

그는 나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는 듯, 날 위아래로 훑어본다. “당신이
헤다지겠지? 내게 물약을 준 사람은 그게 헤다지를 소환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 효과는 정반대예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한다. “물약이
당신을 제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가 왠지 눈에 익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아마 내가 성역 곳곳을
모두 누볐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껏 나는 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부족과 조직을 보아 왔으니, 기시감이라는 묘한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난 테잘이라고 해요. 이리 와서 제 탁자 앞에 앉으세요.” 내 명에 따라 우리
사이의 공간에 나무 탁자가 실체화된다. 탁자는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붉은색
식탁보가 덮여 있고, 의식용 두개골, 행운의 주화, 점술용 칼날 등 시금석 세
개가 천을 누르고 있다.



그는 그 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먼저 보다가, 비틀거리며 내 맞은편에 앉는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역사의 선물입니다.” 허공에서 카드가 나타나고, 나는 손을 뻗는다. 카드들이 내 손 위에서 춤을 추며 서로 뒤섞인다. 내가 두 팔을 좌우로 벌리자, 카드는 허공으로 날아가 원을 그리며 펼쳐진다. 방문객은 얼빠진 듯 그걸 바라본다. 카드는 각각 나름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꿈틀거리고, 하나하나 저만의 이야기로 통하는 차원문이다. 나는 다시 두 손을 하나로 모으고, 카드도 그 뒤를 따라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 별이 되어 기다린다.

각각의 카드 앞쪽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대개 사람의 모습이지만 가끔은 물건인 경우도 있다. 바로 그 사람 또는 물건의 마치 다른 차원에서 도망쳐 온 영혼처럼 내 어깨 위로 희미하게 떠오른다.

“혹시 이게 마음에 드실까요?” 나는 카드를 지아란의 눈 높이에 띄워 그가 볼 수 있게 한 후, 카드를 뒤집어 그림 속 사람 또는 유물의 이야기가 적힌 문구를 드러낸다. 너무나도 작고 뻑뻑해서, 안경이 없으면 읽을 수조차 없는 글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나는 다시 카드를 뒤집고, 이방인은 몸을 움츠린다. 앞서의 그림이 더 많은 글과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다. 휘장일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상처가 남긴 흉터의 무늬일까. 글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난 카드를 위로 솟아오르게 한다. 카드는 거듭 양면으로 뒤집어지며 카드에 기록된 항목과 그 소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좁다란 두 개의 면에 한 권의 책이 실려 있다. 카드들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나는 모두 외우고 있다. 내 생각에 헤다지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우리 각각이

소유하고 있는 무한한 지혜다. 우리는 세계 안의 세계다.

이방인은 카드를 붙잡으려 하지만, 카드는 그의 손을 피한다. “이건 무슨 속임수인가? 나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난 그의 질문을 무시한다. 그도 결국엔 진정할 것이다. 이곳에 처음 도착한 방문객은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유물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 애초에 그들을 여기로 이끈 것을 떠올리곤 한다. “잘 보세요.” 내가 손을 흔들자, 우린 처음으로 돌아가 아주 섬세하게 그려진 괴물 같은 쥐의 두개골을 마주한다. 털과 살점은 꼼꼼이 벗겨내고, 뼈를 깨끗하게 닦아 놓은 모습이다. 두개골은 거의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로 말끔하게 보존되었고, 그런 느낌이 카드의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다. 애정을 담아 뼈에 바른 광택제의 빛은 마치 상자 위에 색색으로 빛나는 껍질을 더해 놓은 것만 같다.

내 어깨 위 어둠을 뚫고 두개골이 나타난다.

“서부원정지 영주의 드루이드 아들, 바일룸의 방어구 일부예요.” 난 지아란에게 말한다.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는 도시의 하수도과 지하실, 묘실의 미천한 동물들에게 사랑받았죠. 하지만 인간들에게 그러지 못했어요.” 이 말쑥한 이방인이 서부원정지의 재앙이 남긴 무시무시한 물건을 찾아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저 그의 진심을 끌어내고 싶을 뿐. 난 그림을 손가락으로 두드린다.

“이 두개골은 그가 가장 총애하던 부하의 것이었어요. 플라토라는 이름의 지성이 있는 쥐였는데, 도시에 역병이 돌자 쥐를 모조리 박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도시 경비병의 손에 죽고 말았죠. 플라토의 주인은 차마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쥐의 두개골로 자기 윗옷을 장식했어요. 쥐의 왕은 정말이지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죠. 죽어간 설치류 친구들의 뼈와 가죽, 이빨과 꼬리로 치장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마치 명망처럼 쥐 두개골을 남겨, 누구 소행인지 적에게 알려 줬어요. 하지만 플라토의 두개골만큼은 버리지 못했죠.”

이방인이 얼굴을 찌푸린다. 뭐, 물론 불편한 광경이지만, 비위가 약한 사람 같지는 않다. 이 남자는 죽음의 광경에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군. 거기에 직접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의 얼굴을 꼼꼼이 살피며 그의 진짜 욕망에 관한 단서를 찾아 보지만, 그는 마치 배우처럼 내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감춘다. “그게 헤다지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며 거대한

전투와 영광의 순간을 기록하죠. 우리는 역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순간을 수정처럼 명료하게 남겨 두는 역사가예요.”

나는 광택 나는 쥐 두개골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별로 관심 없나요?” 나는 손을 흔들며 카드를 물린다. “아니면 이쪽이 더 마음에 드실까요?” 쥐 두개골이 어둠 속으로 밀려나고, 녹이 두텁게 쌓여 회색으로 변해 버린 거대한 투구가 드러난다.

이방인은 회색 아래에 희미하게 드러난 금빛에서 흥미를 느끼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그 투구는 사실 성자의 부름이라는 작은 마을의 자카룸 성당에서 뜯어낸 커다란 무쇠 종이다.

“이건 ‘황금 투사’ 클라스울나라는 야만용사의 투구예요. 그는 자카룸교의 이름으로 건설된 모든 성당에서 무쇠 종을 빼앗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종들을 자르고 부셔, 금박을 입힌 방어구의 일부로 삼았죠. 불경한 성물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클라스울나는 이미 오래전 성당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복수가 그의 종교가 되었죠. 게다가...” 종을 주조하고 깎아내 눈구멍과 두개골 같은 이빨이 포함된 가면의 형태로 만들었지만, 거기엔 여전히 종을 만들 때 넣은 금이 남아 있었다. “...금이 이 공포의 물체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죠... 적들이 숭배했던 것을 이용해 자신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버려냄으로써 오히려 적을 조롱하는 셈이었죠. 그는 적들이 심판의 얼굴을 바라보게 했어요.”

지아란은 그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술을 축인다. 그래, 금을 더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돈을 좋아하는 남자겠지. 어쩌면 숭배하는지도 모른다. 클라스울나의 유산을 찾아 온 걸까? 그 무시무시한 야만용사가 그에게 뭔가 의미 있는 존재인 걸까? 아니면 그저 많은 금에 이끌린 걸까?

그는 탁자에서 일어나 투구를 바라본다. 투구는 아슬아슬하게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안개 속에서 묵직하게 흔들린다.

그제야 난 깨닫는다. 아니, 지아란은 투구에 손을 대려는 게 아니다. 그 너머를 보려는 거다. 아까도 그는 혼란에 휩싸여 나가는 길을 찾으려던 게 아니었다. 내가 또 어떤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려는 거다.

그는 마지못해 탁자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다. 나는 손을 흔들며 카드를 물린다. 내 뒤쪽이 검게 변하고, 그의 눈길을 끌 만한 것이 사라진다. 이제는 그와 나뿐이다.

나는 그를 직접 상대하기로 한다. “뭘 찾는 거죠, 이방인?”

그는 부끄러워하는 듯하다. 아니면 난감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묻는다. “헤다지는 다들 당신과 비슷한가?”

“글쎄요, 우리가 혈연 관계냐는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 사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든 부족과 직업, 존재하는 모든 종족에서 선발되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한 성격이나 구체적인 경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선택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방의 소박한 벽을 훑듯 바라본다. “고독을 갈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방 안엔 늘 당신뿐이잖아? 언제나 혼자고.”

얼음장 같은 손가락이 등골을 훑어내리는 것 같다. 걱정해야 할까? 내 약점을 더듬어 찾고 있는 걸까?

그는 다시 늑대 같은 미소를 짓는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겐 유쾌한 일이 아닐 거야.”

어렸을 때,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다고 말했다. 타고난 지도자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언젠가 어머니처럼 내가 우리 부족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의 소녀는 이미 오래전 사라졌다. 그래도 요즘은 가끔 한 번씩 찾아와,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외로운 삶이 당신에겐 잘 맞는 것 같은데.” 거의 우쭐해 하는 말투다. 이 사람은 자기 판단을 확신한다. “정말 그런가? 여기,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만족스러운가?”

나는 카드를 섞는다. 손에 느껴지는 카드의 감촉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그 카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내 이야기, 수천 년에 걸쳐 내가 기록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다. 내 아이들이자, 내 가족이다. “개인적인 기분이 어떻든 필요한 일이예요. 우리는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록해야만 하는 시간 속의 순간을 찾아요.”

“관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

“맞아요. 우리 기록하러 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우리 얼굴이 가까워진다. 그가 은빛 머리카락을 다듬을 때 쓴 기름과 그의 옷에 뒤엉킨 연기 냄새가 느껴진다. “하지만 헤다지가 그냥 기록만 하지는 않았던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헤다지가 운명에 관여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나는 침착하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애써 호흡과 시선을 차분하게 유지한다. 그가 알고 있을 리는 없다. 정보를 캐내려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니까.

난 싱긋 웃는다. "사람들은 헤다지가 맹세를 깨뜨리기를 바라죠. 그래야 우리가 더 인간적으로,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느껴질 테니까. 하지만 안 돼요. 우린 그러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참 어려워 보이겠어, 테잘.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야."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걸까?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끔찍한 학살을 내가 목격했던 걸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걸 찾아 왔을까? 그게 무엇인지는 짐작도 할 수 없다.

"그 순간의 일부가 되는 건 제 몫이 아니에요. 헤다지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죠. 기록이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헤다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 모두를 추억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답을 알아내려 한다. 더는 계속해서 회피하며 절반의 진실만 내놓는 나를 참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행동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을까... 순결이 더럽혀진다거나, 무고한 사람들이 도살당한다거나?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온 세상에 대한 범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이제 잔뜩 흥분한 그의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다. 심판을 구하러 온 걸까? 어리석게도 내가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나를 심판하려는 걸까?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친구."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그는 다시 한번 탁자에서 일어서 내 등 뒤의 어둠 속으로 들어선다. 그는 내가 전시해 놓은 수집품들을 살펴보려 하고, 이번에는 나도 그림자를 거두어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허락한다. 그는 선반으로 다가서고, 눈을

움직이며 그 위의 물품을 빠르게 살핀다. 인상적인 전시품이라 할 수 있지만, 내 수집품은 대부분 카드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곁에 두는 물체들은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값비싼 것도 아니다.

그저 내 상상력을, 혹은 연민을 사로잡은 물품들일 뿐이다.

그는 걸음을 옮기며 물품을 하나씩 살피고, 항상 예의 바르게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마치 학자처럼 열중한 표정으로 물품을 꼼꼼히 살피본 후에야 다음 것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웬지 그 모든 게 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내 개인 수집품 중 하나인 붉은색 천 조각 앞에서는 멈춰 서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 그 낡고 해진 천은 언뜻 봐서는 걸레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도 그 구석에 희미하게 나타난 빛바랜 인장의 일부를 보지 못한 것이다. 용턱뼈의 윤곽선, 초승달의 곡선.

그는 내 수집품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물건 앞에서 멈추어 선다. 소녀나 젊은 여성이 낄 법한 반지다. 귀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다. 평범한 합금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반지에는 남자의 손 한 뼘 정도 되는 길고 가느다란 쇠기가 붙어 있다. 장신구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쇠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용도가 있다.

"이건 흥미롭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기울여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오래된 유물이예요." 나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한다. 나는 그를 더 자세히 보려고 면사포를 들어올린다. "오래전 사멸한 부족 것이었어요. 담지. 혹시 들어 본 적 있나요?"

그는 턱을 쓰다듬는다. "들어 본 적이 있다고하면 놀랄 건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 남자는 누구지?

그의 손이 반지 위로 올라간다.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만져 봐도 될까?"

마침내 그가 속내를 드러낼까 하는 생각에, 난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물을 집어든다. 그리고 이리저리 돌려 보며 모든 각도에서 감상한다. "이건 뭐지?"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긴 쇠기를 끝까지 쓰다듬는다. "가까운 거리에서라면 스틸레토처럼 무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공격자의 목에 박아 넣거나... 눈을 찌르면 뇌까지 닿을 수 있겠어."

우리는 선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정말 폭력적인 분이시군요.” 나는 말한다. 나는 그의 손에 있는 유물을 향해 고개를 까닥거렸다. “보시다시피, 그건 반지예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유물을 바라보다가, 다시 선반에 올려놓는다. “왜 긴 뺨기가 달려 있지? 단순히 장식을 위해 손가락에 끼는 거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데...”

“담지에게만 해당하는 두 번째 용도가 있죠. 그들의 마법은 공동체의 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 명이 함께 마법을 사용했고, 그 반지의 막대가 피뢰침처럼 작용해서 모두의 힘을 조율해 주었죠.”

깜짝 놀란 듯 그의 눈썹이 올라간다.

“그 광경을 보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들었죠. 당시엔 아주 막강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영원히 사라져 버렸죠. 시간은 위대하고 하찮은 존재와, 강하고 약한 존재들까지 모두 다 삼켜 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죠.”

그는 이제 감탄하는 눈빛으로 반지를 바라보는 것 같다. “마법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소유하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이제는 담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아쉽군.”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대답한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한 명만 빼고.



처음 바다알을 보았던 때를 기억한다. 성취의 날이 막 지난 때였다. 담지의 일원으로서, 나는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도 성인이라고 할 수 없었다. 부족 특유의 긴 다리가 막 자라기 시작했고, 야간 사냥에 합류하려면 꼭 필요한, 어둠 속에서도 앞을 보는 능력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태양의 축복을 받은 우리 땅에서 사냥을 할 때는 열사병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가 진 후에 마을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었다.)

나는 부족의 구성원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담지는 모두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되었다. 여자들은 내 자매이자 이모, 사촌이었고, 남자들은 형제이자

숙부였다. 부족의 대모였던 어머니는 그 시간엔 늘 그렇듯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 몇몇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마치 놀이라도 하듯, 말린 가죽을 길게 자르고 꼬아서 밧줄과 그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중이었다. 모두가 일을 했다. 나만 빼고.

나는 뿌루통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몰래 내려다볼 수 있는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 나는 내 삶이 막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다 끝나 버릴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다. 더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내 나의 역할이 정해지고, 그러면 내 삶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다. 그게 어떤 역할일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처럼 우리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다. 나는 그게 내가 원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부족민들이 내 또래 중에서 적당한 동반자를 찾아 줄 테고, 몇 년 후에는 결혼도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조만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지 않는 건 우리 가족의 영적 수행뿐이다. 모든 부족민은 그 수행에 참여해야 했다. 내게 있어 달라지지 않는 건 그것뿐이었다. 담지의 마법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공유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물론 그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힘이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 아주 독특한 점은, 그 마법이 여럿이 함께하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시전하면, 마법도 그만큼 더 강해졌다. 그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마법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제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수상하게 생각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중에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밤이 되면 아버지와 숙부들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경쟁 부족의 시기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듣곤 했다. 다른 부족은 우리의 평온함과 우리의 단합을 질투했다.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법을 부러워했다. 다른 부족들은 질투와 탐욕, 개인의 열망, 영원한 자아의 굶주림으로 인해 조각조각 분열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담지는 달랐다. 내 생각에, 함께하는 한 우리는 안전했다. 우리는 강했다.

나는 베란다의 커다란 차양 아래에 숨어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가족들이 머무르는 마구간 쪽 안뜰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럴 리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만 같았다. 그쪽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 가족들을 지붕 아래로 몰아넣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초원에는 그들이 거의 없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낙타나 소들에게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곤 했다. 한낮의 열기 속에 필요 이상 머무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맑은 일을 빨리 마칠 수 있게 서로 힘을 합칠 것이다.

바로 그때 폭발의 섬광과 함께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다.

그다음 일은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높은 베란다에서 낮선 차림새로 색색의 외투를 걸친 사람들이 주문 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리고 헛간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다. 다들 붉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였다. 검고 짙은 연기가 혼란과 파괴의 내음을 풍기며 건물들 위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폭발과 섬광이 일어났고, 유황과 지옥불과 기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경한 재료들의 냄새가 번졌다. 어린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그 뒤에서 날카로운 폭발음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이모, 숙부, 사촌들이자, 내 아버지였다.

주방에 있던 사람들도 폭발음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분하고 지적이어서 타고난 지도자라 불렸던 내 어머니는 재빨리 그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밖의 동족에게는 무기가 없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한낮에 가축을 돌보는 일에 무기를 가져갈 이유는 없었다. 우리 계곡엔 포식 동물도 없었으니까.

포식자들이 외부에서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질투와 공포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 다른 부족이, 상상할 수도 없던 만행을 저지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왜 어머니가 부족민들에게 마법을 시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합리적인 의문이다. 어머니는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 우리 중 아무도 끼고 있지 않았다. 식사 자리에 석궁을 가져가지 않고, 또 잠자리에 독약병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안전한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 보였다.

어머니는 황급히 반지를 가지러 달려갔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앞문이 벌컥 열렸다.

색색의 외투를 입은 자들이 달려들어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우리 가족들을 가리켰다. 나는 그들이 무릎을 꿇으라고, 아니면 벽에 붙어 서라고 명령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찾아 왔다고 생각했다. 신부를

흠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았다. 물론 그런 일은 남자 한 명이나 용기를 북돋워 줄 친구 한두 명과 함께 벌이는 게 보통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부를 구하려고 몰려오는 일 같은 건 들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눈앞에 펼쳐지는 유혈이 낭자하고 폭력적인 광경에 나는 몸을 움츠리며 차양 아래로 더 깊이 숨어들었다. 그러다가,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대로 베란다에 숨어서 침입자들이 빨랫감 더미로 착각해 주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계속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겁쟁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여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죽는 게 나았다.

나는 차양을 밀어젖히고 달려 나왔다. 나는 거칠게 포효하며 계단을 달려 내려가, 공격자들 중 한 명을 향해 몸을 던졌다. 내 또래의 어린 사람이었다. 그도 놀란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들의 계획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공동 주택이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호의 오라를 펼치지도 않은 것이었다.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보고 하마터면 벌러덩 나자빠질 뻔했다. 그때 그의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 나이로 보아 신참이겠지만, 그래도 마법학자였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올리고 전력을 다해 집중하며 나를 가리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암송했다.

수 세기가 지났지만, 그때 온몸을 휩쓴 고통을 나는 아직 기억한다. 온몸에 불이 붙은 듯했다. 고통이 어찌나 강렬한지 비명과 울부짖음, 피 냄새까지 모든 게 그냥 사라져 버렸다. 나와 몸의 오른쪽에서 이글거리는 불길만 존재했다.

눈을 뜨자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었다. 주위에서는 대학살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는 그때의 내가 쇼크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다. 내게 고통을 준 소년은 내 위로 몸을 기울이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건지 확인했다.

내 몫의 전투는 이미 끝났다. 아무도 도울 수 없었다. 나 자신조차 도울 수 없었다.

그때, 소년의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바다알이 보였다. 그가 오직 내게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를 약마나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공포에 질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두 눈 가득한 연민이 나를 사로잡았다. 지금도 그날의 그를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파리하다 못해 푸르게 보였던 그의 민머리. 발목까지 흘러내리던 긴 검은색 겹옷. 작디작은 구멍 같은 검은 눈동자. 그리고 그 표정에 가득한 크나큰 슬픔.

죽은 척하렴.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죽은 척하면, 그도 널 다시 해치진 않을 거다. 그냥 네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해 주마.

나는 그 말에 따랐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머니가 죽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기어가 막내 여동생을 감싸 안으며 지키려 했다. 그들 앞에 선 남자는 연민 따위 없이 어머니의 가슴을 칼날로 꿰뚫고, 다시 자매의 목을 갈랐다. 나는 그의 잔혹한 두 눈에 집중했다. 그후 수천 년 동안 보아 온 바로는, 살인자들의 눈은 모두 똑같았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죽은 척했다. 가족을 공격한 자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버린 우리 집에서 축제를 벌이는 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그들은 발로 사체를 쿡쿡 찌르며 정말 다들 죽었는지 확인했다. 내 자매들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쑤시고는 가장 어린 자의 첫 살인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자의 이마에 붉은 칠을 했다.

그들이 떠난 후, 바다알은 실체화되었다. 그는 나를 집의 다른 구역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내 상처에 약을 바르고, 공격자의 빨간색 목도리 조각을 이용해서 상처를 묶어 주었다.

“누구세요?” 다시 입을 열 수 있게 되었을 때, 난 물었다.

그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놀랍도록 섬세하게 움직였다. “난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위해 보내졌다.”

“대학살을요.” 그 나이에도, 난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았다.

“그래, 대학살을.”

“그들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도둑질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법학자였다고요.” 누구에게든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했다.

“그걸 잊어버려야 한다.”

“잊어버리라고요?” 그 말에 목이 죄어 왔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고, 그러자 내 안의 무언가가 풀어졌다. 나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떠올라, 주위를 둘러싼 공포로부터 멀어졌다. “

때가 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일단은 내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 주고 싶구나. 안전한 곳으로 말이야. 그래도 될까?"

마지못해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경멸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우리 생각이 채 3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식어가는 사체들에 미쳤다. "하지만 내게는 그럴 힘이 없단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었으니까. 난 헤다지다. 우리는 부족 전체가 말살되는 상황 앞에서도 행동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 슬프게도 이 세상의 역사에서 보면 그런 사건이 드물지 않단다. 난 그저 내 일을 하러 거기 갔었다. 기록하고, 목격하는 일이지."

나는 붕대를 감아 주는 그의 손에 내 손을 얹었다. "그런데도, 행동하셨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공격자들에게 몸을 던지는 모습을 봤어. 그 순간에 난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걸, 숙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의 길 위에 마치 갈릴길처럼 두 개의 길이 나타났지. 네가 살아남는다면, 위대한 일을 해줄 것 같았다."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알은 정말로 그런 길을 보았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난 바다알이 엄청난 힘을 지닌 선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날 구해야만 했다.

"네가 헤다지가 되지 않는다면, 내게 널 구할 힘은 없어. 우리에게 허락된 행동은 그것뿐이거든. 우리의 일원이 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았을 때만, 우리는 관여할 수 있다." 나를 보는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넌 아주 훌륭한 후보자가 될 거야."

"게다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란다. 넌 대부분의 시간을 숨어서 보낼 수 있어.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볼 수 없을 거다. 네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너도 지금은 아무도 널 *보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겠지. 오늘 너희 부족 구성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건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누가 그 일의 배후에 있고, 왜 너희 가족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내기 전까진."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나는 말했다.

바알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헤다지가 된다는 것에는... 지식의 저주가 따른다.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아, 테잘.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해주마... 너는

가슴이 무너지고 참혹한 일들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근간은 다정함이 아니야. 이 세상은 고통을 보지 못한다. 너는 그 모든 걸 목격해야 하고, 네 한계에 복종해야 한다. 절대 행동해서는 안 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어떻게 참으세요?” 난 물었다. 그 후로 우리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결국엔 바다알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품위 있고 상냥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가 무슨 괴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통제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사명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그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법이지. 우리 모두가 위대한 영웅이 될 수는 없단다. 하지만 헤다지가 없으면, 서기가 없으면, 인류의 수많은 영웅적인 업적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기록될 수도 없을 거다. 그렇다면 그런 영웅적인 위업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지.”

하지만 그날, 맹세를 깨뜨리고 나를 구출하면서, 바다알은 감히 영웅이 되려고 했다.

나는 바다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헤다지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게 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목숨을 구해준 바다알에게 빚을 진 기분이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내 사명을, 내 의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게 내 소명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런 제약이 언짢지 않은 건 아니었다. 두건과 잉크 아래의 나는 여전히 인간이었다. 심장이 있고,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아란이 날 초조하게 한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아주, 아주 오랜만이다. 여차피 난 보호받고 있으니까.

나는 탁자를 밀며 물러났다.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겠죠.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그게 뭔지 말하지 그래요?”

그는 이 말에 화를 낼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를 오해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도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수 있다. 가장 비밀스러운 욕망은 자기



지아란이 열쇠에 강렬한 관심을 보이는 건 그가 나를 죽이러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에게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서 직접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따라간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낸다. 그는 내 가슴 사이를 바라보고 있다.

욕정 때문이 아니다. 내 가슴 사이에는 마치 팬던트처럼 가죽 줄에 묶어 목에 걸어 놓은 유물이 있다. 목직한 쇠로 만들어진 목걸이.

열쇠다. 어딘가 술집의 소박한 문이나 열어 줄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열쇠. 너무 평범해서 이방인이 뚫어져라 바라볼 이유가 전혀 없는 열쇠.

하지만 지아란이 그 열쇠가 무엇이고, 그게 어떤 문을 여는지 알고 있다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반지를 찾아 온 것이 아니었다. 반지는 시험에 불과했다. 그건 내가 담지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아니, 그는 열쇠를 찾아 온 것도 아니었다.

열쇠는 내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겨진 금고를 여는 것으로, 내게 주문을 걸어 준 하웨자르의 마녀가 그걸 숨겨 주었다. 그때 난 내 비밀을 직접 숨기겠다고 거듭 말했지만, 마녀는 다른 사람이 숨기는 게 더 안전한 거라며 고집을 부렸다. 그게 어디 숨겨져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는다고 해도 그 위치를 털어놓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 대신 마녀는 내게 열쇠를 주었다. 이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이 비밀 영물이 숨겨진 곳을 찾고, 그다음 열쇠를 내게서 빼앗아야 한다. 물론 그 순서대로일 필요는 없지만.

그때는 좋은 계획인 것 같았다. 그리고 덕분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불멸의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주문이 시전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경험도 일천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 마녀들도 뇌물에 넘어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런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두려울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지아란이 열쇠에 강렬한 관심을 보이는 건 그가 나를 죽이러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푸르른 눈을 들여다 보자, 모든 게 제자리에 맞아 떨어진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암살자, 용병 살인자다. 그 살인자의 눈이 정체를 드러냈다. 누군가 내 수집품 중에서 담지의 반지를 보았고, 그 끔찍한 날에 모든 담지가 몰살당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아주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탈출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왜? 누구든 왜 온 세상을 살살이 뒤져 날 찾아내라며 암살자를 고용하기까지 한 걸까? 이 정도의 암살자라면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이유야 몇 가지 짐작 가는 것이 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나 아버지, 갓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헤다지가 필경하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아니, 이런 원한은 내가 헤다지가 되기 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렇다면 담지의 학살 때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내 가족을 공격한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건지는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바다알은 내게 그냥 잊어 버리라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기억은 의식 속에 남겨 두기를 거부하라고 거듭 말했다. 잊어 버리지 않으면, 치유될 수도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물론 바다알도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야만 헤다지가 되는 데 필요한, 어쩌면 그중에서도 최고의 헤다지가 되는 데 필요한 자제력과 절제가 내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분명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 하나의 호기심으로 향하는 문을 닫았다. 어차피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해도 가족이 돌아올 수는 없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내 가족이 학살당하게 만든 불화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담지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도 몰랐다. 목격하는 것. 증언하는 것.

지아란이 나를 죽이러 보내진 건 내 가족의 학살이 과거의 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일까? 누군가, 아니 어떤 부족이나 일족이, 자기들의 죄책감을 감춰 두고 싶기 때문인 걸까? 그때 아버지는 몇몇 강한 부족과 다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저지른 일일 수도 있었다. 금속을 금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던 우리만의 특별한 능력을 배우고 싶다는 시기심이나 탐욕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아마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 지금껏 품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바다안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숨어 있어야 한다. 누군가 나를 찾아 올지도 모른다. 헤다지로서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의 생각이 옳았다. 하지만 유물에 대한 애착이 결국 내 파멸을 초래한 모양이다.

헤다지에게도 약점이 있다. 바로 우리가 고독한 생물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혼자 산다.

혼자 살기에, 단말마의 비명을 질러도 들어 줄 사람이 없다.



지아란은 자기를 보는 내 시선을 의식한다. 내가 자기 정체를 깨달았음을 안다.

내게 허락된 선택지가 눈앞을 스친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도 있다. 여긴 내 집이니, 내가 유리하다. 그는 누군가 이 방에 들는지 모른다고, 다른 손님이 휘도는 안개와 함께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면 내 벽에 걸려 있는 치명적인 유물이 한 순간 내 손으로 날아올지 모른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그가 나에게 대해 알고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다. 그는 돈을 받고 일하는 암살자다.

그는 내 잘린 손가락을 보았고, 내가 불멸의 주문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도 유추해 냈다.

그는 손가락 열 개를 모두 지니고 있으니, 다른 주문이나 목걸이로 보호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죽을 수 있는 상태이다. 물론 그러려면 내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선택지 중 어느 무엇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그가 나를 포로로 잡고 주문을 깨뜨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나를 죽이는 것이다. 주문이 깨지는 순간 난 유기체적 상태로 돌아가, 가혹한 시간에 굴복한 채 흠으로 분해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야 그가 내 접객실에서 처음 실체화되던 순간 느꼈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 지아란은 악의를 갖고 날 찾아왔다. 이게 내 끝의 시작일 수 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윗입술에서 땀방울이 비어져 나온다.

그때, 거대한 파도처럼 서늘한 무심함이 나를 덮친다. 일체의 판단이나 해결책을 떠올려야 한다는 강박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헤다지의 재능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내 가족이 살해되고 바다알이 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긴 사슬의 일부로 본다. 언젠가 그 원이 다시 이어지고,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날의 사건은 언젠가 내 죽음 혹은 가족에 대한 복수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헤다지는 복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는 담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헤다지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만 같다. 지아란은 계속해서 나를 관찰하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려 한다. 나는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산한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를 죽일 수 있다. 나 자신을 지키려는 욕망이 거세진다. 너무나도 오랜만의 느낌이라 무척이나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보호받는 존재에게, 그런 감정은 애초에 필요치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이 남자를 죽이면,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적어도 다음 암살자가 날 찾아내기 전까지는.

이 남자의 목숨을 거둘 방법을 그려본다. 그에게 달려들어 벽으로 밀칠 수 있을 것이다. 벽에는 한때 번절한 강령술사의 것이었던 단검이 전시되어 있다. 그 뼈 칼날이 예전처럼 예리하진 않겠지만, 충분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남자의 갈비뼈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방인은 검을 갖고 있었고, 수중에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기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호의 주문이 그의 손을 무디게 하고, 검집에서 칼을 꺼내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내게 공격할 시간을 벌여 줄 것이다.

귀에서 쿵쿵 박동이 느껴졌다. 그를 죽일 순 있지만, 그게 *허락된 일일까?* 그의 죽음이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결정이 내 손을 벗어난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 눈도 깜빡하기 전에, 그는 밀림의 표범처럼 유연하게 탁자를 뛰어넘어 내게 달려들었다. 우리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그가 무게를 실어 나를 누른다. 호리호리한 사람 치고는 놀랍도록 무겁다. 온몸이 근육과 뼈일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아 그가 검이나 숨겨둔 단검을 향해 손을 뺀지 못하게 한다. 그가 나를 곧바로 죽일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게 상처를 입혀 방어할 수 없게 만들 순 있을 것이다. 손발이 묶이고 재갈을 물고 싶진 않다.

우리는 몸싸움을 하지만, 내가 지치는 건 시간문제고, 내가 그보다 먼저 지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야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나는 그를 과소평가했고, 보호 주문을 지나치게 믿었다.

그는 내 보디스를 붙잡고 흔든다. 힘주어 당길 때마다 단단히 조인 끈이 내 갈비뼈와 척추를 파고든다. 마지막 남아 있던 산소가 폐에서 빠져나가고, 나는 금세 힘이 빠진다. 나는 기를 쓰며 그의 손을 붙잡고 풀려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열쇠를 바라보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내 몸을 꿰뚫을 것만 같다. 그제야 나는 기억을 떠올리고 깨달았다. *그냥 열쇠를 쥐 버리지.*

그의 손목을 붙잡은 손에서 힘을 빼자, 그는 몸을 빼며 내가 실수를 했거나 지친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열쇠를 붙잡고 강하게 끈을 당긴다.

마지막 힘을 그러모아, 나는 그와의 거리를 벌릴 주문을 시전한다. 그에게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질 뿐이지만, 그와 동시에 보호 오라가 날 뒤덮는다. 오래 버티진 못할 테지만, 그걸로 그를 막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운이 따라 준 것을 믿기 힘들다는 듯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내 모습이 안개 너머로 보일 것이다. 나는 무력하게 바닥에 움츠린다.

내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는 언짢다는 듯 입을 삐죽이고는 열쇠를 외투에 집어넣는다. 분명히 나를 데려가고 싶을 것이다. 그 편이 안전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꿰뚫을 수 없는 보호막 뒤에 있고, 그는 나를 꼭 데려갈 필요는 없음을 알고 있다. 어차피 주문이 거두어지면 내 목숨은 끝날 테고, 아니면 그가 다시 날 추적해서 일을 끝마치면 그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는 덜 확실한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게 더 쉽고, 빨리 이 빌어먹을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시작하고 싶으니까.

그는 자욱한 안개와 함께 사라진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내가 방금 떠올린 것,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열쇠에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열쇠를 사용하려 하는 자는 누구든 파괴해 버리는 주문으로 그걸 감싸 두었다. 물론 위험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 나는 내게 불멸을 선고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오히려 나와 같은 일을

나는 헤다지다. 모든 걸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다.

했지만 오랫동안 살아낸 끝에 그 사실을 후회하게 된, 얼굴이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뒤덮여 인간이라기보다는 거북이에 가까워진 한 마법사와 대화한 후 영원한 삶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또한 이 세상에 혼자였고, 그가 아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그 늙은 마법사와는 달리, 내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나는 헤다지다. 모든 걸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 아픈 관절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고, 몸을 파고든 보디스 끈을 조정한다. 지아란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여차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열쇠를 사용하려 하는 순간 그는 파괴될 것이고, 그때 열쇠를 회수하면 된다. 나는 무사하다... 하지만 살아남으려고 그 사람과 옥신각신한 이후라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정신이 바쁜 움직임을 멈추고 모든 사실을 천천히, 정확하게 되짚어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내 깊은 과거, 담지였던 과거의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시도할까? 나는 선반으로 가서 수백 년 전 바다알이 현명하게 내게 남겨준 천 조각을 집어든다. 그들을 찾아낼 수단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그들을 추적하지 않는 건 내 선택이었다. 그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래... 나는 그들을 감시하기에 유리한 입장이다. 헤다지는 첩자다. 그것도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첩자다. 이제 내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 알았으니, 난 지켜볼 것이다.

공기가 아른거리기 시작한다. 다음 방문객이 오고 있다.

나는 서둘러 쓰러진 가구를 제자리에 돌려 놓아 방안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바로잡는다. 하지만 나 자신이 차분해지기는 쉽지 않다.

안개가 휘돌고, 이내 갈라진다. 다른 방문객이 내 접객실 중앙에 서 있다. 나는 얼굴에 미소를 떠올린다.

“이방인이여,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운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ALMA KATSU는 2011년부터 소설을 썼다. Alma Katsu의 작품은 대부분 역사 소설에 초자연적 또는 공포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그녀의 작품은 퍼블리셔스 위클리, 북리스트, 라이브러리 저널에서 열띤 호평을 받았고,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및 국제 시상식에서 후보작으로 선정되고 수상하기도 했으며, NPR, 애플 북스, 굿리즈, 아마존 등에서 여러 최고의 도서 목록에 포함되었다. 도너 파티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한 *The Hunger*(2018)는 미국 NPR의 인기 호러 작품 100위에 포함되었고, 계속해서 호러 장르의 새로운 클래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호러 소설인 *The Fervor*는 브램 스토커상과 로커스상에서 최고의 호러 소설 후보에 올랐으며, 국제 스릴러 작가 협회에 의해 최고의 하드커버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그녀는 또한 정보 기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작가로서 논리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첩보 스릴러 작품도 발표했다. 첫 번째 첩보 소설인 *Red Widow*(2021)는 뉴욕 타임스 편집자 선정 작품으로 소개되었으며, 국제 스릴러 작가 협회에서 최고의 소설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Red London*은 2023년 3월 평단의 호평 속에 출간되었으며,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테왁은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헤다지의 다른 단편
소설들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